

사순절 첫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IN LENT

주후 2021년 2월 2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21 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새 53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8 번 시편(Psalm) 19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14:12-24	양용일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5) – 진실한 반응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In Faithful Response)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안수 및 임직 Ordination/Installation	(안수/임직 순서지 참조)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죄와 비난의 말이 앞서서 우리의 죄악과, 회개를 말하면서도, 좀처럼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맞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자칫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95: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한글개역 **눅 14:23**)

“Then the master told his servant, ‘Go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and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NIV **Luke 14:2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21 (주일)	2/22 (월)	2/23 (화)	2/24 (수)	2/25 (목)	2/26 (금)	2/27 (토)
	출4	출5	출6	출7	출8	출9	출10
본문	눅7	눅8	눅9	눅10	눅11	눅12	눅13
	욥21	욥22	욥23	욥24	욥25,26	욥27	욥28
	고전8	고전9	고전10	고전11	고전12	고전13	고전14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2/24 오후7:30)	“불의한 세상, 공의로운 하나님” (눅18:1-8)
토요 새벽기도회 (2/27 오전6:30)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시27:1-14)

지난 주일(2/14)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4) – 들음으로”(막 9:2-9)

교회력에 따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주일을, '산상변모주일 (Transfiguration Sunday)'로 지켜왔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통과 대속의 죽음이 시작되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변화된 영광의 모습도 아니었고, '초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막9:7)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 1)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또한 이것은 2)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3)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집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막8:18)며 탄식하시거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막49)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야 할 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1:19)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